

전주시 '봉침 사건' 공지영 고발키로

"천사미소주잔보호센터 비호 발언은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공지영 작가 "공개 토론하자"

전주시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봉침 사건'과 관련해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한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날 모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발언한 공지영 작가에 대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천사미소주잔보호센터를 전주시가 비호하고 있다는 발언은 전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금명간 공 작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실무 국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백 국장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 작가는 '행정이 개입했다', '꼼수다' 등의 말을 했다. 전주시의 행정이 다소 미흡하게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비호한 것처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 후 "수사기관에 공 작가의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전주시와 공직자, 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고발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공 작가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조만간 시

장님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공지영 작가는 27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봉침이 처음에는 한 개인이 허가 없이 침을 놓고 돈 좀 받는 경우로 생각했지만 행정이 개입하고 정부 예산과 시민의 세금이 동원되는 등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며 한마디로 전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28일 공 작가는 "전주시가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을 봤다. 막연하게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모욕했다는 내용인데 정말 놀랐다.

지자체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할 수 없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순히 공 작가의 발언이 못마땅하다는 식의 두무몽술한 내용을 작가인 저도 포스팅 못한다"면서 "저는 전주시와 그 사람들과 연합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했다. 고발을 하든 말든 저를 시민들 앞에서 묵시발을 만들어 달라. 이상하다면 어떻게 이상한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공 작가는 "전주시에 정말 놀랐다. 차라리 공개 토론 해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채규남 기자

특정 후보 홍보기사 써주고 돈받아

선관위, 군산 잡지사 대표·예비후보 고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잡지사 대표와 모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와 주필, 군산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잡지사 대표와 주필은 A씨로부터 홍보기사 게재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며 "남은 기간 유사사태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안희정 영장심사 출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광형성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1시간 35분가량 안 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심리가 열리기 7분전인 오후 1시53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더해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면서 이를 뒤로 일정을 미뤘고 안 전 지사도 입장을 바꿔 이날 심사에는 출석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이나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기자

고창서 실탄 250발 발견 한국전쟁 때 사용 추정

28일 오전 7시2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밭에서 실탄 250여발이 발견됐다.

이 실탄은 발은 정리하던 굴착기 운전사 문도(49)씨가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은 M60 기관총 탄환으로 보인다"며 "부패 정도에 비해 한국전쟁 시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탄을 수거하고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송천동 오송제 구조건들 새 주인 만난다

전주시·동물보호단체, 10마리 입양절차 진행

불법사육 개들이 전주시와 동물보호단체의 구조에 힘입어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

전주시는 동물을 위한 행동 등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한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불법 사육 개 10마리가 입양절차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입양되는 개들은 오송제 개농장에서 불법으로 사육되며 고통받아오다 시와 전주시 동물단체가 협업을 통해 지난 23일 10마리를 구조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복지, 환경 및 불법 건축물 등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사육중인 개를 인도적 방법으로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구조된 개들은 전북대학교 내 임시 보호소를 거쳐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아안독스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입양될 예정이다. 개와 함께 키우고 있던 염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될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고 있다.

이번 불법사육 개 구조와 입양절차에 함께 참여한 임재우 전북대 수의대 교수와 박정희 전북환경운동연합 박정희 위원, 남지숙 동물을 위한 행동 회원, 나미킴 세이브코리아안독스 대표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5명은 이날 전주시장실을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불법사육 개를 구조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전주시민들을 대신해 김시장에게 개 식용금지과 동물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채규남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카드 호텔 사용 기록 발견

고소 취하·잘못된 것 인정... 정계은퇴 시사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에 제기했던 고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음을 사인했다.

지금까지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의 당시 래스틴 호텔(현 컨싱턴 호텔)에 간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28일) 뒤늦게 정 전 의원의 카드가 해당 호텔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하

는 한편, 자신의 해명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달고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의 눈으로 결제내역을 직접 확인한 이상 기억이 잘못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즉각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조사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협동조합 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서울시정출마를 철회하겠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정계은퇴를 시사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 개최

전주시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찰, 여성·아동 보호시설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경찰과 여성폭력보호시설 관계자,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